마쓰노키 신사(松木神社)

이 신사에는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오바마 번 농민들을 옹호했던 마을 지도자 마쓰노키 쇼자에몬(松木庄左衛門, 1625 년~1652 년)이 모셔져 있습니다. 4 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는 와카사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건설자금을 위한 무거운 세금

에도 시대(1603 년~1867 년)에는 돈 대신 쌀이나 콩 등의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17 세기 초 교고쿠 가문이 오바마 번을 통치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그들은 오바마 성의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두로 납부하던 세금은 약 12~25% 증가했습니다. 이 과세 수준은 번주가 교체되고 오바마 번이 사카이 가문의 통치 하로 바뀐 후인 1641 년에 성이 완성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간신히 이것을 낼 수 있었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은 번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농민을 위해 일어선 마쓰노키 쇼자에몬

마쓰노키는 부당한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세율 개정을 번 정부에 직접 청원하기 위해 모인 252 개 마을의 20 명이 넘는 대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0 년 이상에 걸쳐 계속된 호소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금이 원래 수준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엄격한 사회계급 구분 하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에 직접 청원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오랜 과정에서 중요 인물이었던 마쓰노키는 1648 년에 체포되어 1652 년 히카사 강 기슭에서 28 세의 젊은 나이로 책형에 처해졌습니다.

신사의 창건과 경내

1933 년, 마쓰노키 신사는 마쓰노키 쇼자에몬과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과거 오바마 번의 공적인 쌀창고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일본 신사의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숭배되어 온 신도의 신들을 모시고 있지만, 마쓰노키 신사는 비교적 최근의 역사상 인물을 모시는 신사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도리이를 넘어서면 한쪽 무릎을 꿇고 글을 바치고 있는 마쓰노키의 큰 동상이 있는데, 이는 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번 관리들에게 청원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